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읍면을 방문해 지역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초 약속한 농지 지원 대책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배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안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것과 향후 개발 계획 변경 시 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풀공영농조합법인

공동농업확산지원공모선정

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6년 공동농업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풀공영농조합법인(이하 풀공법인)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에서 기존 5개소가 먼저 선정된 데 이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풀공법인이 추가 1개소로 이름을 올리며 혁신적인 농업 모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풀공법인은 고품질 콩 생산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별시설을 구축하고 교육컨설팅 및 기계장비 등 20여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모양성제서 블랙이글스 에어쇼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초청, 특수비행으로 역대급 볼거리 기대

고창군이 제53회 고창모양성제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선보이며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고창군은 올해 모양성제 기간 중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초청해 역동적인 에어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블랙이글스는 고난도의 특수비행과 정교한 편대 비행으로 관광객들에게 압도적인 장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고창읍성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고창모양성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3회 고창모양성제는 고창읍성 일원에서 10월15~19일(닷새간) 개최되



며, 답성놀이와 전통문화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1석 3조 효과 '톡톡'

관내에 총 26곳 중점 운영... 주차난 해소·교통환경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부안군은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도심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주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부안을 시가지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오정 공영주차장,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마실 공영주차장 등 부안읍 관내에 총 26개소(2011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에 기여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줄어들어 도로 통행이 원활해지며 인



근 상가 및 주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 공영주차장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

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범운영 중인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은 일평균 약 620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도 월 87건에서 월 71건으로 19% 감소했다.

이를 통해 주차 수요가 효과적으로 분산돼 차량 통행 여건이 크게 개선됐고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4개소 최종 선정

정읍연지마루·리본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용호지황마을·감성나무 협동조합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서 신규 지정 3곳을 포함해 총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심사서 전 북특별자치도 전체 16개 선정 기업 가운데 정읍시 소속 4개 기업이 포함되며 도내에서 눈에 띄는 선정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심사를 통해 새롭게 이름을 올린 신규 마을기업은 정읍연

지마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리본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용호지황마을 협동조합 등 3곳이다.

이와 함께 감성나무 협동조합은 재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지속적인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마을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주민 간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단체다.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지역 자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기업 역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자원과 주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이학수 시장, 새내기 공무원들과 간담회

정읍시, 신규 직원 19명과 격의 없는 현장 소통

정읍시는 지난 18일 이학수 시장과 19명의 신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 한 끼를 나누며 공직 생활의 고충과 진솔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현장 소통 간담회 '브런치 토크'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제 막 공직에 들어와 낯선 환경을 마주한 저연차 직원들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서적인 공감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인생 선배이자 공직 선배인 시장의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고

격려하는 데 중점을 뒀다. 편안한 식사 자리로 꾸며진 이날 행사에서 신규 직원들은 평소 공직 생활에 대해 품고 있던 궁금증부터 개인적인 고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질문을 자유롭게 쏟아냈다.

이학수 시장 역시 직함을 잠시 내려놓고 진솔한 답변을 이어가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끌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소회는 물론 선배 공직자에게 구하는 애정 어린 인생 조언까지 오가며 유대감을 쌓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3월 읍면동장 소통회의 개최

지역 주요 현안 논의·현장 중심 생활 민원 해결 당부 등

정읍시가 지난 18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23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읍면동장 소통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의 생활 민원 해결과 주요 시장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학수 시장과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해 각 국·소장과 23개 읍·면·동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과 이달의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행사 계획 등을 중심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비롯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한 생활 민원 발굴 및 신속한 대응을 각 읍·면·동에 강조를 당부했다.

이외에 해빙기 안전사고 및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불철 주요 행사 대비 환경 정비와 안전 관리 철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23개 읍·면·동장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안전,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생활 민원 처리 현황과 여론 동향을 상세히 보고했다. 또한 지역별 우수 수범 사례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다가오는 봄철 행사 준비 상황 등을 폭넓게 공유하며 본청과 일선 현장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다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